



특집 _ 재외동포재단, 한상(韓商) 기업 청년인턴십 소양교육 ‘한상&청년, Go Together’ 를 통해 “한민족 경제영토 확대”
기획 _ ‘강제이주’ 80년 맞는 연해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연해주로 재이주, 새 삶 일귀... 올해 다양한 행사 예정



신년사



존경하는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재외동포 여러분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독일에 우리 간호사가 파견된 지 50주년,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인 재일민단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모국의 발전과 국력 신장에 초석이 되어준 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극동지역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단은 고된 이주역사 속에서도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 온 고려인들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우리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재단은 1997년 창립된 이래 재외동포와 모국을 이으며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재단은 그간에 추진해온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재외동포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열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해에도 재외동포재단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의 성취를 기원합니다.

재 외 동 포 재 단
이사장 주 철 기

CONTENTS 2017. 01



04



10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가나 등 13개국의 20개 한상(韓商)기업에 나가 인턴을 하게 될 청년 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0일까지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02 신년사

04 특집

재외동포재단, 한상(韓商) 기업 청년인턴십 소양교육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한민족 경제영토 확대”

06 화제

“국내외 어려움 극복에 전력을 다하자”
한인회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08 신년인터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모국-동포 동반성장 강화”
“차세대 주류 진출로 거주국서 동포 영향력 커져… 모국과 윈-윈 모색”
재단 창립 20주년 맞아 제주도 이전 “서울사무소로 동포 불편 최소화”

10 기획

‘강제이주’ 80년 맞는 연해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연해주로 재이주, 새 삶 일궈… 올해 다양한 행사 예정

12 글로벌 코리안

재미한인과학기술자協 첫 여성회장 서은숙 교수
‘K-팝 사전’ 펴낸 재미동포 1.5세 강우성 씨
험한시위 막고 험한 블로그 삭제 끌어낸 재일동포 최강이자 씨

14 동포소식

과테말라 수도에 한인문화회관 생겼다 외

17 동포 캘린더

한인체육총연 윤만영 3대 회장 취임 외

18 지구촌통신원

미 홀트국제아동복지회 60주년 임양가족 초청 만찬
“입양은 아이와 양부모 모두에 엄청난 축복”

19 유공동포

인종차별·편견에 맞선 다이빙게 ‘작은 거인’ 새미 리
올림픽 2연패 위업… 미 한인사회에서 이민 영웅으로 추앙받아

20 한민족공감

‘남이 장군 19대손’ 불가리아인 카멘 남 교수 ‘명예 한인’ 됐다
한반도 분단과 이산의 아픔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삶

21 주목! 차세대

미 엔터테인먼트업계 ‘차세대 리더’ 안지 강 씨
방송 콘텐츠 첨단 기업부사장,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큰 영향 끼칠 인물로 선정돼

22 OKF 뉴스

“한식·미용 한류 전도사 될래요” 고려인 36명 직업연수 수료 외

24 고향의 맛·멋

고난의 역사 담고 태어난 퓨전 음식 ‘의정부부대찌개’
상이한 명칭 ‘부대’와 ‘찌개’가 어울려 새로운 음식문화 창출

26 우리말 배워봅시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상(韓商) 기업 청년인턴십 소양교육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한민족 경제영토 확대”



1. 재외동포재단은 한상기업에 인턴십으로 파견할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사전 교육을 시행했다. 2. 인턴십 파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에서 한상 특별강연에 나선 호주 제마이홀딩스의 이숙진 회장(좌측)과 필리핀 CTK ASIA의 천주환 대표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상(韓商)기업에 나가 인턴을 하게 될 청년 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세계한상대회’의 인턴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인턴에 뽑힌 이들은 1월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라오스, 가나 등 13개국의 20개 한상기업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열린 교육에는 대양주 한인 최대 기업으로 호주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제마이홀딩스의 이숙진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해외 취업과 창업에 대한 경험을 전하는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 회장은 청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가장 익숙한 것이 경쟁력이 있다”며 “인턴 과정을 밟으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앞서 세계한상대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의 부회장인 필리핀 CTK ASIA의 천주환 대표도 인턴 청년들을 만나 해외진출과 무

역 노하우 등을 알려줬다.

천 대표는 “한국의 청년들은 해외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 받고 있어서 자신 있게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단순히 일을 배우는 게 아니고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라고 조언했다.

인턴 청년들은 사흘동안 재외동포와 한상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스피치법, 이미지 메이킹 등 해외 근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글로벌 매너 등을 교육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동포 기업이 국내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모국 사랑도 있지만 글로벌 인재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취업이 되지 않으니깐 해외로 눈을 돌려겠다는 안일한 접근은 또 다른 취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상&청년, Go Together’ 행사에서는 해외 인턴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이 700여명 몰려들었다. 이들 중 50여명이 서류 심사와 공개 오디션, 심층 면접을 거쳐 1차로 채용

확정됐다.

앞서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정병모(28)씨는 “해외취업을 해보니, 한국의 수직적인 기업문화보다는 보다 직원을 귀하게 여기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한상에게는 업무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현지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자신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일본 해피식품(대표 진영섭)의 선택을 받은 임성환(경북대 디자인학부 3학년)씨는 “작년 대회에 참여해서 인턴으로 뽑힌 친구들이 적극 추천해서 이번 행사에 지원하게 됐다”며,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일본에 가서 전공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기쁘고 설렌다”고 소감을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23개국의 49개 한상기업은 11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재단은 지속적으로 인턴을 선발해 순차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을 적극 권장하는



지난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한상&청년, Go Together!'에 도전한 국내 청년들이 공개오디션에 앞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관들은 해외에서 성공한 한 명의 거상(巨商)으로 인해 수많은 고용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징검다리 역할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인턴 채용이나 취업이 창업으로 이어져 차세대 거상이 나오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상 기업 파견을 앞둔 청년들에게 “국내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은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해외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직업소양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

인턴 선발자 개요



양병현 (가나)

(26 · 세종대 컴퓨터 전공)

대학시절 자매결연한 프랑스 대학에 교환 유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일본과 유럽 11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어서 해외에서의 생활에 자신이 있다. 이번에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한상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게 돼 무척 설렌다. 풍토병 등 위험이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선진국이 아니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 같다.



이명은 (일본)

(26 · 대구가톨릭대 디자인 전공)

해외 취업에 도전하려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인 자격 취득에도 신경 써 디자인 관련해서 4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고교시절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서 이 분야의 강국인 일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이번에 디자인기업의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돼 무척 기쁘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아가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모선웅 (인도)

(25 · 항공대 물류 전공)

지금까지 인도와의 인연은 학창시절 현지 무주택자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봉사에 3주간 참여해본 경험이 전부다. 컨설팅 회사에서 물류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예정이라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은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외 인턴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 다른 세계를 접한다는 게 큰 매력이다.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 시야를 넓혀서 돌아오고 싶다.



성은빈 (인도네시아)

(24 · 부산외대 인도네시아 · 말레이어 전공)

인도네시아는 학창시절에 여학연수를 다녀온 것과 2014년에 현지 바이어와 한국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해 통역을 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현지인과 소통하면서 살아본 경험이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직접 현장을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인턴 경험을 잘 살려서 인도네시아 한상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어려움 극복에 전력을 다하자” 한인회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재외동포의 경험과 역량으로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

승은호 아시아한인총연합회 회장



드디어 2016년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순간도 예측이 불가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환경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을 비록 힘들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히 꺾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외국에 나와 정착할 때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운 일들을 상의하고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 저는 믿습니다.

들의 삶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정세를 간과할 수 없다 보니 지구촌 곳곳에서도 그 흔들림을 잡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유럽의 현실 또한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버리는 잦은 테러들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난관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심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한 발걸음을 떼어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멈춰서는 안 될 발걸음입니다.

“순리에 따라 난국 풀고,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



붉은 원숭이를 지나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부디 2017년에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봉합되어, 더욱 건설하고 단단해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휩쓸린 이 난국의 물살이 너무도 거세어 이 급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찾기가 절대 쉽지 않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지만,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소의 지혜를 빌려 ‘우생마사(牛生馬死)’의 정신으로 순리에 따라 난국을 풀어나간다면, 이를 자양분 삼아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 모든 이목이 쏠린 지금이야말로, 슬기롭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 잡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가야!”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을 항상 가까이 두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 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면 밖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동포

“평창올림픽 성공 위한 후원회 설립할 것”

오공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정유년 새해를 맞아 내외 동포의 만복을 기원하며 삼가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한일 우호친선의 상징인 조선 통신사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실현할 해입니다.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신청한 사업이 우리의 염원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반드시 한일우호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삿포로·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결집해 2018 평창올림픽을 위한 ‘재일교포 후원회’를 설립, 우리 민족의 지력을 다시 한 번 내외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끝으로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앞으로 본국과의 유대강화와 동포사회의 원활한 세대교체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이 결실을 거두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멀리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동우 대양주한인총연합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저물고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각처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오신 재외동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땀방울들이 헛되어 흐르지 않았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정유년을 상징하는 ‘붉은 닭’은 지능이 뛰어나고 앞을 내다보는 예견력이 뛰어나,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 비상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은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기회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 불황과 국내외의 어지러운 정세로 목표로 향하는 곳곳에 장애물들이 산재해있지만, 굴하지 않고 힘차게 운명을 개척하고 도전해 더 멀리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 자세로 도전하면 어려움 충분히 극복”

이숙순 중국한국인회 회장



지난해 말 본국에서 발생한 여러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인해 여러분 모두 마음을 크게 다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계속 드러남에 아픔은 치유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스스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촛불로 미래의 희망을 밝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모습은 큰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날은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봉황열반, 옥화중생(鳳凰涅槃, 浴火重生)’, 즉 ‘봉황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 속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불사의 아름다움으로 태어난다는 굳센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물리쳐 낸 영웅 이순신 장군께서도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한다면, 우리 앞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재국에서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게 애국”

이혁연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회장



지난 병신년 한 해를 돌아해보면 우리 고국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조국에는 지난해에 마무리하지 못한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올해에는 또한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인 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CIS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도 한때 국내문제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주재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게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보입니다.

우리는 주재국 인사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하여 민간 외교관으로서 조국 발전에 일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모든 일에 임하는 게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모국-동포 동반성장 강화”

“차세대 주류 진출로 거주국서 동포 영향력 커져…모국과 윈-윈 모색” 재단 창립 20주년 맞아 제주도 이전 “서울사무소로 동포 불편 최소화”

주철기(71)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차세대의 주류 진출 등으로 거주국에서 영향력이 커진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2017년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라며 “설립 초창기와 비교하면 동포사회도 대한민국도 비약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또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과 지금까지 소홀했던 한인 입양인, 해외 다문화 가정,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 등도 한민족 공동체로 끌어안아 모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말로 예정된 재단의 제주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업무 상 공백이 없도록 서울사무소를 두어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600억 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예산 어떻게 쓰이나?

A.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도 3~4% 수준인 데 비해 재단은 10% 증액됐다. 그만큼 정부도 재외동포를 중시하고 있다. 한글학교 지원·청소년 초청연수·장학사업 등 차세대 육성 확대와 국내 청년의 한상기업 취업을 늘려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이 늘어나도록 힘쓰겠다.

최근 동포사회는 거주국에서 장관·국회의원·대법관·대학 총장 등 지도층에서 활약하는 인사가 늘어나는 등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도 경제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쏟겠다.

Q.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특별히 계획하는 사업은?

A. 재단은 지금까지 720만 명의 재외동포를 섬기는 데 주력해왔다. 거주국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20주년을 맞아해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학자, 관련 단체 종사자, NGO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동포사회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언하는 ‘글로벌 한민족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고 재단의 중장기 사업방향도 마련 하겠다.

Q.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지 80주년을 맞이했다. 구소련 해체 후 아직도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려인을 위한 재단의 지원 방침은?

A. 러시아·CIS·국내 체류 등 여러 곳으로 흩어진 고려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사 재조명을 통해 올바른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거주국과 국내의 고려인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하는 학술회의를 열고 거주국에서 자체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제·음악회·전시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지원해 그동안의 노고도 위로한다. 현지에서 무국적자로 지내거나 국내 장기 체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Q. 한인 입양인·해외 다문화 가정·국내 체류 재외동포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A. 20만 명에 이르는 한인 입양인과 정확한 현황도 파악 안 되는 다문화 가정은 재외동포임에도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런데도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비중은 다른 재외동포보다 높다. 방치하면 현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민족이



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포사회는 물론이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은 일시 방문보다 장기 거주가 늘고 있다. 이들은 생김새는 비슷해도 내국인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은 현황을 파악한 후 차세대 육성부터 하나씩 지원을 늘려가겠다.

Q. 동포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차세대 육성이고 그 중심에 '한글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 재단의 지원 방향과 기준은?

A. 예산이 한정돼 있어 중요성에 비해 지원액수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재단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늘여가고 있다. 지원액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학생·교직원 수와 현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고 현지 공관과 한국교육원의 의견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열악한 고려인·조선족 학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교수법 강화 등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해마다 인원을 늘리고 있다.

Q. 국내 취업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한상(韓商)을 통한 해외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A. 지난해 9월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국내 청년의 한상기업 인턴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1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순차적으로 교육을 거쳐서 파견하고 있다. 청년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에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인턴 파견을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을 추진해보니 취업 나오자들이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출중하고 도전정신과 패기가 있는 준비된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서 한상들도 반기고 있다.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은 한민족의 경제지평을 넓히는 일이라서 파견 후 꼼꼼하게 사후관리까지 챙기려고 한다.

Q. 7월 말로 예정된 재단의 제주도 이전으로 인해 동포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A. 재단을 방문하는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두고 필요하면 직원이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재단 홈페이지와 코리아넷 등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를 활성화해 사이버상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각종 초청연수는 서울사무소에 전담 부서를 둘 예정이다.

제주도 이전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의 쉼터 역할과 연수원·각종 민원 처리를 맡게 될 '재외동포 지원센터' 건립이 더 시급해졌다.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계속 필요성을 알리겠다. **[장]**

‘강제이주’ 80년 맞는 연해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연해주로 재이주, 새 삶 일궈... 올해 다양한 행사 예정



1



2



3



4

1. 1937년 9월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이 첫발을 내린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당시 집이 없어 한인들이 땅을 파고 모여 살던 외곽의 토굴촌은 지금 공동묘지로 변했다. 2.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재정착촌 '우정마을'. 3. 상하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역임했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던 애국지사 최재형 선생의 우수리스크 생가. 4.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고려인 문화센터). 2009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에서 1937년은 가장 비극적인 한 해였다. 그해 9월 중일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연해주에는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고려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졌다. 스탈린의 소수민족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 극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버린 것이다. 고려인 ‘강제이주’가 있는 지 올해로 80년을 맞았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정부는 고려인이 일본의 첩자로 의심된다며 강제이주 명령을 내린다. 군대를 동원해 9월 9일부터 11월까지 고려인 18만여 명을 장장 5천~6천km 떨어진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내쫓았다. 불과 1주일, 또는 2~3일 전에 통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끌려가는 일이 비밀비재했다. 강제이주에 앞서 스탈린 비밀경찰은 고려인 지도자 2천500여 명을 체포·처형해 고려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연해주를 떠난 지 한 달여만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반(半)사막 지대와 갈대밭 지역에 내던져진 고려인들은 토굴을 파서 추위를 견디며 겨울을

났다. 누구의 도움 한번 받지 않고 황무지를 일구느라 많은 고려인이 쓰러져갔다. 당시의 숙청, 기근, 질병 등으로 최대 2만5천 명이 사망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경 지역 이주 금지를 비롯해 입대 거부 등 차별 대우에도 시달렸다. 또 국가기관 취업 및 취학이 제한됐고, 정계 진출도 봉쇄된 것은 물론 민족학교도 폐쇄됐다. 한국어가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고려인은 좌절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거듭했다. 황무지를 개간했고, 중앙아시아에 논농사를 전파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 콜호스(집단농장)는 300만 평의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 소련 최고의 모범 농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려인은 농사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각 분야로 진출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다. 교사·의사·건축가·엔지니어·법률가·공무원 등 각종 전문 직종에 진출했다. 1989년에는 고려인의 도시 거주 비율이 85%에 달했다. 대학 진학률도 25%를 기록해 소련 내 140개 민족 중에 아르메니아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강제이주 직후 80%에 달하던 농업인구는 12%로 줄고 도시 거주 중간 관리층으로 발돋움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는 고려인의 몰락을 가져왔다. 소련 시절 공용어인 러시아어만을 구사하던 고려인들은 신생 독립국들이 토착 민족어를 국가 공용어로 선포하면서 고급 전문직과 공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당시 고려인들은 신분 추락을 감수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다시 이주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고, 피땀으로 이룬 터전을 버리고 다시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이주를 결심한 고려인들의 대다수가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정했다. 연해주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인 우수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장 많이 몰렸다. 강제이주에 이어 또 한 번의 이주가 이뤄진 것이다. 연해주는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슬라브 문화권이기도 하지만 선조들이 강제이주 전에 거주했던 마음의 고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인의 연해주 이주 역사는 150년을 넘어선다. 고려인의 연해주 정착 시기는 1863년경으로, 1902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하와이에 건너가려고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선조보다 39년이나 앞선다. 조선 시대 지배층의 수탈로 살기 어려워진 한인들은 신천지였던 연해주로 몰려들었다.

그 옛날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진 조상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연해주는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 신홍학교 설립자 이동녕, 항일무장 투쟁의 영웅 홍범도, 대한제국 장군 출신의 혁명가 이동휘, 국사학자 신채호 등 연해주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연해주의 고려인은 2014년 말 기준 2만9천198명이며 이중 우수리스크에 1만5천여 명이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8만2천957명, 카자흐스탄 10만5천400명으로 집계됐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삶에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환갑과 돌, 결혼식, 추석은 중요한 행사로 한민족의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당근으로 김치를 담그고, 잔치 국수와 비슷한 '국시', 콩나물 볶음인 '질굼채', 된장과 시래기를 넣고 끓인 국인 '시락장무리' 등을 즐겨 먹는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과 러시아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재외동포재단 연구사업에 따른 조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고려인 가운데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율이 34%에 달하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초급이라는 답은 45%, 중급 13%, 고급 2%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급히 제기된다.

올해 중앙아시아, 연해주,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인명록 발간, 갈라쇼, 영화제를, 3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내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에서도 강제이주 사진전, 학술포럼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

5. 고려인 강제이주 열차가 떠났던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모스크바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여기서 시작된다. 6. 우수리스크에서 발간되는 고려신문. 7.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래(73)씨가 2015년 10월 1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환영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해주 스파스크-달니 시에 살고 있는 김씨는 고려인 동포 지원단체 초청으로 광복 70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 첫 여성회장 서은숙 교수

미 천체물리학 연구 권위자... “한미 과학계 잇는 다리 될 것”



서은숙(55) 미국 메릴랜드 대 물리학과 교수가 회원 투표를 거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46대 회장으로 당선돼 오는 7월 취임한다. KSEA는 1971년 출범한 미국 내 한인 과학자·기술자의 모임으로, 45년에 달하는 KSEA 역사에서 여성회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서 교수는 지난해 11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과학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곧 국위를 선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평생 우주만 연구하며 살아온 제가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결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라고 말했다. 그는 첫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배경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면서도 꾸준히 KSEA 부회장 등으로 활동한 점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고려대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86년 미국으로 건너가 루이지애나주립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

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31년째 천체물리학 연구로 한우물을 팠다. 특히 2004년부터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 함께 남극 하늘에 초대형 풍선을 띄워 우주선(宇宙線·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선)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1997년 한국계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미 대통령으로부터 ‘신진 우수 연구자 대통령상’을 받았고, 2006년 NASA 그룹 업적상 등을 수상한 권위자로 꼽힌다.

밤낮없이 연구와 강의를 하느라 24시간이 부족한 하루를 살면서도 ‘무보수 봉사직’인 KSEA 회장을 맡은 이유로 “무엇보다 제가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며 웃어 보였다. “KSEA에는 정회원 6천여 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한인 과학자 모임이 있다고 하면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는 이어 “한인은 국제 사회에서 소수 민족이잖아요? 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집단적 힘은 아직 약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나라는 작지만, 민족은 강합니다. 민족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한국 정부, 기업, 학계도 재외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곧 국력 신장이라는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라고 강조했다.

‘K-팝 사전’ 펴낸 재미동포 1.5세 강우성 씨

“‘얼짱’, ‘엄친아’ 등 예능 신조어 외국인도 알 수 있게 정리했죠”

‘덴봉’, ‘아재’, ‘애교살’, ‘발연기’, ‘본방사수’...

K-팝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TV 예능에 등장하는 속어 또는 신조어들이다.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들을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 세계 K-팝 팬들은 알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따라 부르기에 급급하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사는 재미동포 1.5세 강우성(34) 씨가 K-팝에 푹 빠진 팬들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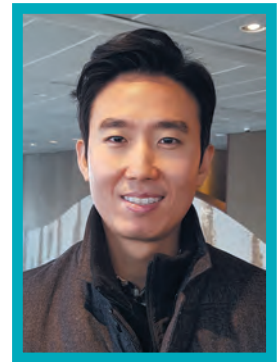
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 500개를 선정해 영어로 자세하게 설명한 ‘더 케이 팝 딕셔너리’(THE K POP DICTIONARY)를 최근 미국에서 출간했다.

비즈니스 차 방한한 강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대형 K-팝 관련 사이트에서 번역 봉사활동을 하던 중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TV 예능 등을 즐기는 외국 팬들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일

상적인 한국어 교재(교과서·사전 등)를 통해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단어와 표현들, 즉 ‘헐’, ‘얼짱’, ‘엄친아’ 등이 많아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사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지역의 K-팝 팬들을 위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번역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나 관공업체 등 외국인들이 많은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여 한국 배포도 추진하고 있다. 강 씨는 영어의 속어를 정리해 놓은 ‘어번 디셔너리’ (Urban Dictionary)에서 영감을 받아 K-팝 사전을 만들었다. ‘더 케이 팝 디셔너리’는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어 속어,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표현을, 단순한 의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영어에 해당하는 표현, 어원과 문화적 배경 등을 담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그는 “아직 절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아시아를 떠올리면 일본과 중국, 닌자, 게이샤와 소림사, 자금성 등을 떠올린다”며 “K-팝으로 대변하는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려면 더 근원적인 한국 문화의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버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 소비자 심리학 석사과정을 밟은 그는 뉴욕한인회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블로그 ‘국가 브랜드 연구소’ (KoreaBrandImage.com)를 운영하고 있다.



협한시위 막고 협한 블로그 삭제 끌어낸 재일동포 **최강이자** 씨

인권침해 구제신청 후 협한 글 눈에 띄게 사라져

재일교포 3세인 최강이자(여·42) 씨는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협한시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재일 한국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에 사는 그는 그동안 협한시위로 인해 겪은 피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고 지난해 5월 가와사키 시의 협한단체 집회 불허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불허 결정 며칠 후에는 집회를 강행하려는 협한단체와 직접 맞서기도 했다. 결국, 집회가 무산됐고 그는 취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른 방식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블로그와 SNS 등에서 그와 가족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최 씨는 이에 굽히지 않고 관할 요코하마 시 법무국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법무국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쿄신문은 11월 27일 최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요코하마 시 법무국이 최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2건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트위터, 구글 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9월 트위터 25건, 블로그 글 2건, 동영상 5건 등 모두 32건의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국은 지난달 초부터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운영자 측도 요청을 받아들이며 협한 글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

최 씨의 싸움은 트위터가 일본 서비스의 인터넷 독자 의견 접수 코너에 ‘차별표현’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집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인터넷상의 차별은 확산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삭제 조치가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상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차별이나 인격부정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시물에 대해 각 지방 법무국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국의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 씨가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들은 대부분 수용되는 분위기다. **창**



과테말라 수도에 한인문화회관 생겼다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 코리아타운 근처에 들어선 한인문화회관 전경.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에 한인문화회관이 문을 열었다. 현지 한인회는 코리아타운 근처인 소나3 믹스코 지역의 단독건물을 지난해 6월에 매입,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2월 4일 개관했다. 대지 695m²(210평)에 건평 1천879m²(569평)의 3층 건물인 한인문화회관에는 그동안 현지 학교와 교회를 빌려 사용하던 한글학교를 비롯해 한인 노인 복지관, 한인회 사무실, 한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센터, 강당, 한국 전통문화 전시관, 이민 역사 전시관, 한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인구 5천 명의 과테말라 한인사회는 2015년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

고 한인 기업·단체·개인 등의 참여를 독려해 90만 달러(약 10억8천만 원)를 모았고 재외동포재단이 30만 달러(약 3억6천만 원)를 보탤다.

최인규 한인회장은 "불황과 한인의 주업종인 섬유산업의 정체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세대의 정체성을 키우고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회관의 필요성에 공감해 모두 힘을 보탤다"며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위해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 K팝 동호회 모임 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의 서목 위원장은 "200여 명의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교실, 300명을 수용하는 강당은 수업이 없는 주 중에는 사진·서예·컴퓨터·미술·스페인어·태권도·에어로빅·고전무용 등 문화센터 강좌로 활용해 한인사회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건립 미 최초 한인촌 '사적지' 지정



미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 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건립한 파차파 캠프의 사적지 지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이 19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에 건립한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가 사적지(Historic Site)로 지정됐다. 리버사이드 시 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산 선생이 건립한 파차파 캠프 사적지 지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산의 막내아들 랠프 안(91·한국명 안필영) 옹과 홍명기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총회장, 장태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UC 리버사이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오는 3월 23일 파차파 캠프가 건립된 장소에서 사적지 지정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리버사이드 시 다운타운에 있던 파차파 캠프에는 당시 한인 10여 개 가족 50여 명이 거주한 판차촌이었다. 1880년대 중국계가 철도공사를 하면서 임시 거주지로 터를 잡았다가 떠나면서 한인들이 들어와 정착한 곳이다.

장태한 소장은 "이번 파차파 캠프 사적지 지정은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촌이 리버사이드에서 건립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랠프 안옹이 직접 참석해 '리버사이드에 건립된 한인촌 파차파 캠프는 초기 독립운동 거점이었다'고 증언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역사관 재개관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안에 마련된 고려인역사관이 전면 보수되어 지난해 12월 19일 재개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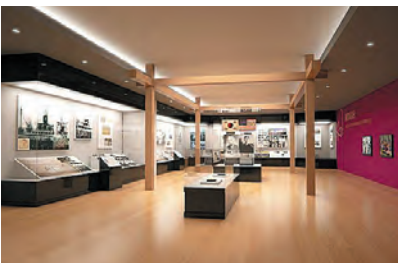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은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안에 마련된 고려인역사관을 전면 보수해 지난해 12월 19일 재개관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고려인역사관은 19세기 이전 고려인의 생활문화, 고려인의 이주와 항일투쟁 역사, 고려인의 노래 아리랑 등 3부로 구성된다. 전시 공간은 연해주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보여주는 물품과 사진, 동영상 등 자료 160여 점으로 꾸며졌다. 러시아인의 농토에서 출토된 신선로, 담뱃대, 수저 등도 볼 수 있다. 고려인역사관은 2009년 10월 시민단체인 동북아평화연대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에는 전시 내용

이 한민족의 강제이주와 항일투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있는 도시로, 연해주 고려인의 절반인 약 1만5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해 우수리스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해 보고서 ‘고려인의 목소리’를 출간한 바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고려인역사관이 고려인의 과거와 현재를 오롯이 보여주는 공간이자 러시아와 중국의 교포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알려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고려인역사관은 고려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해주는 발해의 영토였으며 항일투쟁의 무대였고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가 이뤄진 곳이다.

뉴욕에 미주 한인역사 담은 이민사 박물관 생긴다



뉴욕한인회가 이민 114주년을 기념해 2월에 개관할 예정인 '이민사 박물관' 조감도.

미국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한인 이민 114주년을 기념해 초창기 1세대의 활약상 등을 보여주는 이민사 박물관을 2월 중 개관한다고 밝혔다.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회관 6층에 557m²(168평) 규모로 마련되는 박물관은 이민관, 전쟁관, 독립관, 통일관, 직지심체요절 홍보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안창호, 서재필 등 일제 강점기 미주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주요 인물을 소개하는 코너도 들어선다.

한인회는 그동안 박물관 건립위원회를 구

성해 기금 모금과 이민사 자료 수집 활동을 전개해왔다. 건립 예산은 150만 달러(약 18억 원)로 3분의 1은 한인사회 모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뉴욕시와 한국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13일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뉴욕한인의 밤 및 미주한인의 날’ 행사에서 박물관 건립 모금 이벤트를 열었다.

박물관은 1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해 2월 말에는 한인사회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김민선 회장은 “이민사 박물관은 한인 차세대에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과 더불어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공헌해 온 발자취도 소개하게 될 것”이라며 “자료 수집과 전시의 고유활동, 차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한글로 손쉽게 읽는 멕시코 생활법률 책자 첫 발간



생소하고 딱딱한 멕시코 현지 법률을 한국어로 번역한 현지 한인 로펌 '문더스 아페르투스'의 엄기웅 대표(왼쪽 네 번째)가 책자 발간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책자를 소개하는 모습.

멕시코에서 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생활법률 정보를 모아 놓은 책자가 발간됐다. 생소하고 딱딱한 멕시코 현지 법률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자가 현지에서 출간되는 것은 처음이다. 멕시코에 있는 한인 로펌인 문더스 아페르투스(MUNDUS APERTUS, 열린 세상)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담은 '멕시코 생활법률 50선'을 발간했다고 지난해 11월 30일 밝혔다. 책자는 스페인어와 한글로 민사, 형사, 가사, 노무, 기타 항목을 다뤘다. 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조언, 법적 근거 순으로 손쉽게 설명하

는 방식이다. 특히 만연체로 풀어써 일반인들이 이웃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문더스 로펌은 책자가 있어야 하는 한인 교포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엄기웅 문더스 로펌 대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주요 사례를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면서 "만들다 보니 우리 교민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글로도 번역했고 교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법체계와 비교해가며 풀어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엄 대표는 "힘이 닿는 한 사례집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고 싶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무료로 법률·회계 조언을 해주는 재능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일에서 오히려 더 많은 용기와 힘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인 1.5세 앤서니 엄 씨 '미국 최우수 교사상' 수상



미국 '최우수 교사상' 받은 한인 1.5세 앤서니 엄 씨.

12살 때 미국에 건너간 한인 1.5세 앤서니 엄(35) 씨가 올해 '미국 최우수 교사'에 올랐다. 미국 교육진흥 단체인 '베스트 스쿨'은 지난해 12월 2일 엄 교사가 근무하는 이스트 LA지역에 있는 링컨 고교에서 '2016 최우수 교사상' 시상식을 열고, 총 2만 달러(개인과 학교에 각 1만 달러)의 상금을 전달했다. 엄 교사는 수상 직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며 "앞으로는 교육 행정도 공부해 신입 교사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스트 스쿨'은 2014년부터 미국 전역에

서 추천받은 100여 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적으로 10명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교사 1명을 뽑아 상을 주고 있다. 수학 교사인 엄 씨는 링컨 고교에서 미리 공부해 대학 학점을 얻는 프로그램인 AP(Advanced Placement)의 수학 미적분 과목에서 만점자를 배출하고, 3년째 전원 시험 통과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초 만점자를 배출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에 초청해 격려했고, LA타임스, NBC, US 뉴스&월드리포트 등 주류 언론들도 일제히 엄 교사를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LA통합교육구가 선정하는 '올해의 교사'에 뽑히기도 했다.

엄 교사는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UCLA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링컨 고교 수학 교사로 채용돼 AP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

한인체육총연 윤만영 3대 회장 취임

윤만영 필리핀 대한체육회 회장이 세계 한인체육총연합회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인체육총연은 지난해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의 알라방에 있는 아카시아 호텔에서 윤 신임 회장과 권유현 제2대 회장을 비롯해 각국의 대한체육회장, 김재신 필리핀 대사, 김근한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 현지 한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7~13일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 당시 치러진 선거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호주서 한국어 배우기 확산...시드니대 총장도 합류

호주의 한국어 붐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4일 시드니대학에서 한국어 교사와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호주한국어교육자협회가 창립되면서 한국어가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또 협회 창립 행사와 함께 이틀간 진행된 '제1회 호주한국어교육학술대회'에는 호주 전역의 한국어 교사 70여 명과 교수 약 10명 등 모두 100명이 참가했다. 특히 학술대회에는 시드니대학 마이클 스펜스 총장이 참석해 환영사 전부를 약 5분간 한국어로 해 화제가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10년 만에 3배인 171만 명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71만 명을 넘어선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했다. 외국인주민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며 거주 목적은 근로와 가족형성이 가장 많았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11월 1일 기준으로 171만 1천13명이다. 외국인주민 조사를 시작한 2006년 53만 6천627명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하버드대 한인 학생 낸시 고 씨, 로즈 장학생 선발 영예

미국 하버드대 4학년에서 재학 중인 한인 낸시 고 씨가 영국 연방 인재들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로즈 장학생'에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23일 영국 로즈 장학생재단의 웹사이트(www.rhodesscholar.org)를 보면 재단은 최근 고 씨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32명을 내년도 장학생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역사를 전공하는 고 씨는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뽑혔다. 이 재단의 장학생이 되면 2년간(이사회 재량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옥스퍼드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아리랑은 고향의 노래"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488페이지 분량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지난해 12월 7일 밝혔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중앙아시아 전승(傳承) 아리랑 역사와 기록을 정리한 책이다. 구한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갔던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다. 고난의 역사인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전승한 아리랑 전문 연구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술은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이 맡았다.



오스트리아 한인들, 유럽 난민 돕는 자선음악회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인 음악가와 동포들이 유럽 난민을 돕기 위해 준비한 자선음악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수도 빈의 한인문화회관 영산홀에서 열렸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열린 음악회에는 세계 3대 오페라 오케스트라인 독일 베를린 도이체오퍼의 솔리스트 바리톤 김병길, 메조소프라노 라우라 슈팽엘, 독일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듀오 준우승의 신박 듀오 등이 무료로 출연했고 빈 한인 소년소녀합창단도 크리스마스 캐럴과 동요를 청중과 함께 불렀다. 공연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 코트라, 영산기업 등이 후원했다.



미 홀트국제아동복지회 60주년 입양가족 초청 만찬 “입양은 아이와 양부모 모두에 엄청난 축복”

강영두 |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홀트국제아동복지회가 한국전쟁 직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고 고통 받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편 지 60주년을 맞았다. 홀트 국제아동복지회는 설립자인 해리 홀트 씨가 1955년 한국에서 8명의 전쟁고아를 입양한 이듬해 설립됐다. 한국의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서 2015년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당시 미국의 해외 전쟁고아 입양법은 입양아동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연방상원은 홀트 씨의 청원을 수용해 8명을 입양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밤 워싱턴 DC 주미대사 관저에서 미국 전역에 사는 입양가족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홀트 국제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 만찬 행사를 했다. 미 연방하원 찰스 랭글(뉴욕) 의원은 축사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 태어난 아름다운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품에 안겨 외로움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사랑과 헌신을 느끼게 됐다”며 “또한 아이를 입양한 많은 미국인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많은 분의 사랑과 헌신에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며 “여러분들의 사랑이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셸 본드 국무부 차관보는 “홀트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도왔고, 가정의 재결합과 입양을 도왔다”며 “60년에 걸쳐 엄청난 이정표를 기록했고 골든 스탠더드(표준지침)가 됐다”고 격려했다. 본드



1. 지난해 11월 16일 밤 워싱턴DC 주미대사 관저에서 열린 미 홀트 창립 60주년 만찬 행사에 참석한 입양가족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행사 다음 날 입양인들이 워싱턴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헌화하는 모습. 3. 미 홀트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과 안호영 주미대사.

차관보는 특히 조모와 사촌 등이 입양아동을 키운 경험을 소개하면서 “입양은 아이와 입양가정 모두에 엄청난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성해준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6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한국과 미국의 우호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사는 그러나 아직 시민권이 없어 추방되는 일부 입양인이 있다면서 입양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입양 인시민권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홀트국제아동복지회는 60년에 걸쳐 20만여 명의 어린이를 미국 가정에 입양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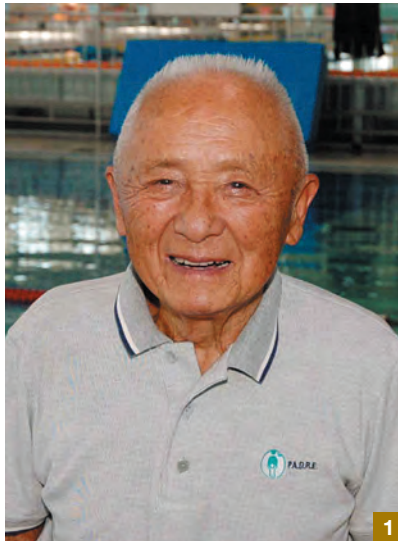
인종차별 · 편견에 맞선 다이빙계 ‘작은 거인’ 새미 리 올림픽 2연패 위업... 미 한인사회에서 이민 영웅으로 추앙받아

1981년 초 미국 수영잡지 스위밍월드에 “백인의 독무대였던 다이빙에서 백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색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내용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지난해 12월 2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한국계 미국 다이빙 영웅 새미 리에 관한 글이었다.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157cm의 단신이지만 미국 올림픽 역사는 물론 세계 다이빙사에 한 획을 그은 ‘거인’이다. 그는 28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던 1948년 런던올림픽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우승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4년 뒤에는 헬싱키올림픽에서 같은 종목 우승을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다이빙 2연패를 이룬 남자 선수가 됐다. 당시 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다이빙에서 인종차별과 편견을 딛고 이룬 업적이라 의미가 더 컸다.

그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에는 수영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수영장 출입이 허락된 뒤에는 그가 훈련하고 나면 수영장에 물을 새로 받았을 정도로 당시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은 심했다. 그럴 때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한결같이 말했다.

“선조들의 인종적 배경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훌륭한 미국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인종 사회인 이 미국에 아시아인의 훌륭한 자질을 심어 주는 것, 그것은 너의 의무다.”

그 가르침대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집념과 각고의 노력으로 그는 심판들의 편파적인 판정마저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에서 다이빙 제1인자로 자리매김했다. 아버지의 희망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1947년 미국 남가주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입대해 선수생활을 이어간 뒤 이듬해 올림픽 무대 정상에까지 올랐다. 나아가 올림픽 2연패를 이뤘고, 1953년 아시아계로는 유일하게 미국 내 최고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설리번 상을 받았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1960, 1964년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고, 1984,

1988년 올림픽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오른 그레그 루가니스 등 세계적 스타 선수들을 길러냈다. 미국 한인사회에서 살아있는 이민 영웅으로 추앙받아온 그는 2010년에 ‘제5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2013년에는 한미우호단체가 주는 ‘올해의 미국 한인 영웅상’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는 그의 이름을 딴 ‘새미 리 광장’이,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에는 ‘새미 리 박사 매그넷 초등학교’도 있다. 고인은 1953~195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군의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원도 평창이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 명예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했고, 수차례 방한해 후배 대표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그는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늘 잊지 않았다. **창**

1. 한국 다이빙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6년 9월 14일 청주 학생수영장을 방문했을 때의 새미 리.
2. 미주동포후원재단(이사장 홍명기·사진 왼쪽)은 2010년 8월 8일 제5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의 ‘한인 올림픽 영웅’ 새미 리 박사와 ‘피겨퀸’ 김연아 선수에 대한 시상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남이 장군 19대손’ 불가리아인 카멘 남 교수 ‘명예 한인’ 됐다 한반도 분단과 이산의 아픔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삶

‘남이 장군의 후손’이자, 김일성 정권 아래 이산의 아픔을 겪은 불가리아인 카멘 남 (59) 교수가 ‘명예 한인’ 이 됐다. 불가리아 한인회는 지난해 12월 3일 소피아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에서 카멘 남 국립소피아대 교수(지리학 및 국제안보학)에게 ‘특별회원증’을 수여했다. 남 교수는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남승범 전 교수(사망)의 아들이며, 조선 세조 때 무신 남이 장군(1441~68)의 19대손이다. 카멘 남 교수의 아버지는 6·25 전쟁 후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불가리아 여성 예카테리나(88)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고, 남 교수를 낳았다. 아버지는 카멘 남 교수가 2세 때인 1959년 귀국 명령을 받아 북한으로 돌아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로 일하게 된다. 사실상 강제 이별을 당한 후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예카테리나 씨는 평양 주재 불가리아대사관 비서 자리를 얻어 남편과 눈물의 상봉을 했다. 예카테리나 씨는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아들을 불가리아에 남겼다. 부부의 북한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승범 교수는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박해와 견제를 받아 대학에서 쫓겨났다. 예카테리나 씨는 남편을 남겨두고 평양을 떠나 불가리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북한에 남은 남편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 봐 연락도 끊은 채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의 성도 그대로 ‘남’씨를 유지했다.



1. 지난해 12월 4일 불가리아 한인회 2016년 정기총회에서 카멘 남 국립소피아대학교 교수(가운데)가 한인회로부터 특별회원증을 받은 후 박성태 한인회장(왼쪽), 신부남 주불가리아 대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불가리아 한인회 제공) 2. 카멘 남 교수가 지난해 8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 인터뷰에서 이복동생과 포옹을 하고 있다. 3. 카멘 남 교수가 2살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경기도청 제공) 4. 카멘 남 교수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남이 장군 묘를 참배하고 있다. 그는 남이 장군의 19대 후손이다.

귀국 후 북한 생활에서 모은 자료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했으나 북한의 처벌을 두려웠다는 이유로 전량 수거, 폐기되고 불가리아 국립도서관과 가족에게 각 1권씩만 남았다고 한다. 아버지 남승범 교수는 북한에서 재혼해 1남 2녀를 뒀고, 1989년 숨졌다. 카멘 남 교수는 지난해 8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탈북한 이복 여동생과 상봉했다.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리학자가 본 불가리아 발칸 비경과 한국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냉전의 산물이자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DMZ를 방문했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조상 남이 장군 묘도 참배했다. 카멘 남 교수 초청 업무를 진행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그는 불가리아 국적이지만 냉전과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한국을 방문해 처음 만나는 여동생과 함께 한국의 발전상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한인회로부터 특별회원증을 받은 후 카멘 남 교수는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 저는 한순간도 제 민족성을 잊지 않았다”면서 “남북한은 꼭 통일돼야만 하고, 통일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미 엔터테인먼트업계 ‘차세대 리더’ 앤지 강 씨 방송 콘텐츠 첨단 기업부사장,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큰 영향 끼칠 인물로 선정돼

“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앞서 있어요. 첨단기술의 선봉국가죠. 저도 한국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예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트’가 ‘엔터테인먼트업계 35세 이하 차세대 리더’로 선정한 한인 2세 앤지 강(33)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UC버클리 로스쿨 출신인 강 씨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훌루(Hulu)에서 4명의 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거래와 건물 임대 계약, 배우들과의 계약 등을 총괄하는 사업 & 법률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다. 훌루는 ABC, NBC, CBS, 디즈니 채널, Fox 등 방송에 콘텐츠를 제공한다.

‘할리우드 리포트’는 11월 9일 미국 내 영화와 TV 방송, 디지털 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떠오르는 ‘35세 이하 차세대 리더’ 35명을 발표했다. 강 씨는 올해 23번째인 차세대 리더 ‘법률’ 부문에 뽑혔다. 이 부문에는 수천 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강 씨를 포함해 3명만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강 씨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자체 제작을 통해 훌루가 미국 최대 케이블방송사 HBO 가입자 수를 추월하는 등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2013년부터 한국 드라마도 훌루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앤지 강 씨가 35세 이하 차세대 리더 법률 부문에 뽑혔다고 보도한 할리우드 리포트 지 기사

“차세대 리더 선정에 따른 혜택이나 시상은 없지만, 공신력 있는 미디어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기회를 얻었고, 회사에서도 실력 있는 변호사로, 또 경영 일선에 있는 중역

으로도 입지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 씨는 최근 타임 워너사가 훌루의 지분 10%(5억9천600만 달러)를 살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년 이상 걸린 협상의 모든 절차를 맡아 진행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야말로 ‘미래의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선호하는 TV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집에서 녹음해 다시 보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다음 날 훌루를 통해 깨끗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

“요즘은 많은 사람이 TV쇼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iPad 등으로 시청하기에 온라인상의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회원제 주문형 비디오 웹사이트인 훌루나 넷플릭스(Netflix)가 일상 생활을 점령하는 매체가 됐죠. 두 회사는 다른 영역을 독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라이선스, 콘텐츠 관리 등의 문제는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최첨단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의 딸인 그는 애너하임 시에 있는 캐년고교를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고, 2008년 UC버클리 법대를 우등 졸업했다. 세계 최대 규모 법무법인 ‘레이ثم & 왓킨스’(Latham & Watkins)에서 3년간 근무하다 2011년 훌루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디즈니, NBC, 20세기 폭스사가 각각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아들을 낳은 그는 “아이 양육 때문에 한동안 고국 방문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항상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OKF NEWS

“한식·미용 한류 전도사 될래요” 고려인 36명 직업연수 수료



인천재능대에서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에 참가한 러시아·CIS에서 온 고려인 청년들은 10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한식요리와 헤어 등 뷰티케어 분야 교육을 받았다.

고국에서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연수'를 받아온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36명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인천재능대학 본관에서 열린 수료식을 끝으로 3개월의 연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10월 4일 방한한 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청년들로 한식요리와 뷰티케어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받았다. 뷰티케어 분야는 메이크업·헤어·스킨케어·네일아트로 세분화해서 기초를 배운 후 심화 과정까지 진행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이론과 실습에 참여했다. 주말에는 인천의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월미도, 서울의 명동·남산·경복궁·인사동 등을 둘러보며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헤어반 과정을 마친 타지키스탄에서 온 텐 블라디슬라브(22·남) 씨는 “패션모형을 하면서 헤어 미용에 관심이 생겼는데 모국에서 습득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실무를 쌓아서 현지에는 없는 독창적인 헤어샵을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다 메이크업반 연수에 참가한 최 나제즈다(37·여) 씨는 “일반인부터 신부·무대 화장까지 한국의 뷰티분야는 세계 일류 수준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여기서 배운 것과 러시아식 화장을 접목해서 현지에서 '뷰티 한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한식요리를 수강한 14명의 학생은 수료식에 앞서 분관 로비에 김치, 보쌈, 닭찜, 각종 전류, 송편, 구이류 등 솜씨를 뽐낸 음식을 전시하는 수료 작품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의 고려인식당 '친선'의 수석주방장인 김 드리트리(27·남) 씨는 “고려인 음식은 현지화가 가미된 한식이었는데 본고장의 맛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돌아가면 주변의 고려인 요리사들에게 정통 한식을 전수해 잊혀진 고국의 맛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수료식 축사에서 “3개월 간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거주국에서 재능과 포부를 마음껏 펼쳐주기 바라며 고려인과 주류사회에 배풀고 나누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재단은 고려인 청년이 거주국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초청 직업연수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 삶 그린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발간

재단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을 엮어 '2016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발간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재단은 수상작 30편과 심사평, 수상 소감 등으로 구성된 '문학의 창' 5천 부를 내년 초 전국 930개 도서관, 153개 재외공관, 1천900여 개의 한글학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korean.net)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수상작에는 해외에서 소수자로 살면서 겪는 애환 등 동포들의 삶이 오롯이 그려져 있다”며 “독자들이 책을 통해 동포사회를 이해하고 한인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다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단은 재외동포가 이국땅에서의 문예창작을 통해 한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문학상 공모전을 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통일교육원, 동포 통일교육 강화키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사진 우측)과 통일교육원(원장 이금순)은 지난해 12월7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8일 통일교육원과 '재외동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한글학교

교사, 동포 청소년 등의 고국 방문 시 통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웹사이트에 통일교육 콘텐츠를 올리고, 해외 한글학교로도 통일 교재를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각국 동포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면에서 ‘통일 전도사’로서 기여할 방안이 많다”면서 “한민족의 미래 주역이 될 차세대 동포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단 조사연구 용역 결과 발표 · 공모전 시상



재단은 12월 16일 학위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주철기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수상자들. 좌측부터 송영호, 홍리나, 김태진, 안수정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양재동 페이토 호텔에서 ‘학위논문 및 UCC 공모전’의 시상식과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수상작은 분야별 재외동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정부정책 및 재단사업과의 연계성, 동포사회 발전과 학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 학위논문상 9편, UCC공모전 8편 등 총 1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연구용역 발표회에서는 학계 및 연구원 등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미주지역 한상의 모국진출 현황 조사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이주·정주 실태조사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 ▲한글학교용 역사

교육 보조교재 개발 등 동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한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재외동포 전문가들과 신진 연구자들의 현장감 있는 다양한 관심사가 반영된 우수한 학위논문들과 창의적이고 구성된 UCC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며 “연구 결과를 적극 참고해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장학생·OKFriends 봉사단 ‘사랑 나눔’ 실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OKFriends 봉사단, 재단 임직원 등이 국내 정주 고려인을 돕기 위한 ‘김장나눔기’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국내에서 수학중인 재외동포 장학생들과 OKFriends 봉사단원, 재단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2016 재외동포재단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담근 약 2,000포기의 김치는 미리 준비한 쌀(5Kg) 300포와 함께 안산 고려인마을과 서울 대림동 지구촌 사랑나눔,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임나탈리아(22세, 키르기스스탄)학생은 “처음 김장을 해서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 조금이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월 18일에는 일본, 스페인 등에서 온 재단 장학생 10여명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연탄 600장을 배달하였고, 19일에는 중남미 지역 장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목도리 뜨기’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작지만 따뜻한 나눔의 경험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한글학회, 한국어 교육지원 협약



업무협약을 맺은 한글학회(회장 권재일, 사진 좌측)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한글학회(회장 권재일)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지난해 12월 9일 외교센터 6층 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교원들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필요한 자격인증사업 ▲재외동포의 대상·지역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및 맞춤형 교재 편찬제작 ▲한국어 교육정보내용에 대한 교류증진 등에 관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글학회의 역사성과 전문성, 전 세계 1천900여 한글학교의 자생력과 1만5천여 교원들의 헌신,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뿌리교육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상호 결합할 경우 우리말과 우리글이 세계화와 문화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고난의 역사 딛고 태어난 퓨전 음식 ‘의정부부대찌개’ 상이한 명칭 ‘부대’와 ‘찌개’가 어울려 새로운 음식문화 창출



1. 먹음직한 부대찌개. 무쇠솥 뚜껑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다. 2. 차례로 올려지는 재료들. 소고기 완자와 소시지에 이어 당면, 떡국떡, 파, 양념 등이 추가된다.

경기도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 군대 용어인 ‘부대’와 음식 명칭인 ‘찌개’가 생똥맛을 뒀하면서도 미묘하게 잘 어울려 제3의 음식문화를 창출했다. 이 음식에는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더욱 배고팠던 지난날의 아픔과 회한이 서려 있다. 의정부부대찌개는 언제, 어떤 연유로 등장하게 됐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1960년을 전후해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 등을 재료 삼아 볶음요리를 해 먹다가 김치, 파, 두부 등과 어울리면서 별미의 찌개로 태어났다. 서양의 식재료와 한국의 식재료가 만나 ‘멋진’ 하모니를 연출하며 ‘다문화 음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위치한 부대찌개명품화협회의 박길순(62) 회장은 “50여 년 전,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한국인 군무원 등이 햄과 소시지 등의 식재료를 부대에서 가지고 나와 거리의 좌판에서 볶아 먹었던 게 그 시발이었다고 한다”며 “서양 식재료

의 맛이 느끼해 김치와 같은 우리 식재료를 넣어 찌개를 만들어 새로운 음식으로 사랑받기 시작했다”고 들려준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는 김치와 두부 등과 멋진 조합을 이뤄 우리 서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으로 재탄생했다. 한국적 특성이 강렬한 ‘혼혈 음식’ 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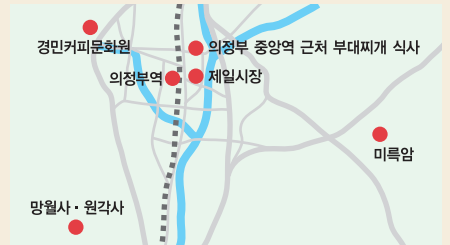
의정부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햄, 소시지, 김치, 두부, 떡국떡, 당면, 대파, 소고기 완자, 고추장 소스, 후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등이다. 여기도 매콤한 맛을 원할 경우 청양고추를 넣으면 좋다. 햄과 소시지의 경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전량 수입산 재료를 쓴다고 한다. 이들 풍성한 식재료가 한 솥에서 어울려 부글부글 끓는 모습만 봐도 배가 절로 불러온다. 부대찌개를 만드는 과정은, 1년 이상 숙성한 찌개김치로 바닥을 깔 뒤 소고기 완자를 그 위에 올리고, 소시지와 햄을 차례로 썰어 넣는다. 이어 당면과 떡국떡이 추가되며, 신선한 대파도 넉넉하게 올린다. 다

▶ 의정부부대찌개거리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의 바로 앞에 길게 이어져 있다. 약 150m에 이르는 이 골목에는 크고 작은 부대찌개 식당 14개가 웅기종기 들어앉아 손님들을 부른다. 2009년, 경기도가 부대찌개 특성화 거리로 지정한 명품골목이다. 의정부부대찌개 거리의 식당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집은 오뎅식당이다. 이 식당을 시작한 허기숙 씨는 2년 전 돌아가시고 대를 이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허 할머니는 1960년 의정부1동 현재의 부대찌개 골목에서 어묵 포장마차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인근 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을 가져다줬고 이 재료로 볶음을 만들어 팔았다. 늘어난 단골들이 밥과 어울리는 요리를 찾았고 볶음을 찌개로 바꾸면서 '부대찌개'가 탄생했다.

▶ 의정부 여행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의정부 중앙역 근처 부대찌개 식사 → 망월사 · 원각사 → 경민cheopimunhwaon → 미륵암 → 제일시장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간선버스: 106번,
 107번(의정부 ↔ 종로5가, 동대문)
- 식당정보
 오뎅식당 (031-842-0423)
 경원식당 (031-846-5464)
 형네식당 (031-846-4833)



3.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11회 의정부부대찌개축제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부대찌개를 시식하고 있다.
 4. 부대찌개축제 때 맛을 즐기는 시민과 방문객들.



음은 다진 마늘과 후추, 고춧가루, 다진 양념 차례. 여기에 하얗고 영양가 높은 두부를 얹은 뒤 불을 지피면 폭 끓인다.

물론 지글지글 끓는 찌개에 라면사리까지 넣으면 그냥 먹는 라면과는 다른 맛을 느껴볼 수 있다. 무와 양파 등의 채소로 우려낸 육수는 의정부부대찌개만의 맛을 한껏 살리는 비결이다. 찌개와 더불어 김치와 짬뽕, 콩나물, 식혜 등이 식탁에 놓인다. 부대찌개는 맛도 맛있어지고 가격 또한 큰 부담이 없다. 식비는 공깃밥을 포함해 1인당 8천 원으로 모든 식당이 균일한 가격을 받는다. 가난했던 시절의 서민음식으로 출발했던 만큼 지금도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정부부대찌개로 푸짐하게 '입맛'을 즐긴 뒤 인근의 제일시장과 행복로를 산책 삼아 걸어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제일시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최대 전통시장이다. 없는 게 없다 싶을 만큼 방대한 규모인데, 전통시장 특유의 따뜻한 정감도 느껴볼 수 있어 좋다. 태조 이성계 조각상과 남녀 인물상이 서 있는 행복로는 제일시장 바로 옆에 길게 뻗어 있는데 누구나 훌가분하게 거닐며 편안한 행복감에 젖어둘 수 있다. 부대찌개 거리와 제일시장, 행복로는 대중교통인 전철로 쉽게 닿을 수 있다. 의정부 중앙역에서 걸어서 코앞이다. **참**



풍성한 부대찌개의 상차림. 식혜와 함께 김치, 콩나물, 짬뽕 등의 반찬이 곁들여진다.

바른 말 고운 말

추호도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리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이 대화에서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할 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쓴 ‘추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추호’는 ‘가을 추(秋)’에 ‘가는 털 호(毫)’자를 쓰는데, 이 말은 본래 가을 짐승의 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짐승의 털이 매우 가늘어지는데, ‘추호도 없다’는 말은 가늘어진 털 하나조차도 없을 정도라는 뜻이니, 전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추호도 없다’는 말은 아주 적거나 거의 없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추호의 거짓 없이 증언했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추호’라는 말은 대개 ‘추호도’ 또는 ‘추호의 OO’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이 말 뒤에는 부정하는 표현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띄어쓰기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글을 보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표어나 안내 표지 같은 것에서 띄어쓰기를 잘못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로 ‘와, 과, 하고, 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산과 바다’, ‘책하고 공책’, ‘언니랑 동생’에서처럼 ‘와, 과, 하고, 량’은 앞 명사에 붙여 써야 합니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말을 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 중에서 ‘사과 및 배’에서와 같이 쓰는 ‘및’이라는 말은 접속 부사로서 앞 명사에 붙여 쓰지 않고 띄어서 써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라는 뜻으로 쓰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쓰인 ‘내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접속 부사로 앞의 명사와 띄어서 씁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 새롭거나 신기한 것에 끌리는 마음
- 삼국지에 나오는 세 사람 중 유비와 장비 말고 수염이 많이 나고 적토마를 타고 다니죠
-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
-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사회나 보도, 실황 방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간장을 담는 항아리
-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섬. 예전에는 오징어가 유명했지요
-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가사 내용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가 포함되어 있다
- 꼭 삶은 콩을 띄워서 만든 장의 한 가지로 주로 찌개를 끓여 먹음. 된장과 비슷하지만, 냄새가 좀 나죠
-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 손오공이 바로 이 동물이죠

-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 김을 매는 데 쓰는 공기구멍의 한 가지. 세모꼴인 날과 꼬부라진 목에 나무 자루를 끼웠음
- 내장의 하나로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 자루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내부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음
- 말을 기르는 집
- 벼슬을 할 운수. 관리로서의 운수
- 육대주의 하나. 세계 육지의 3분의 1을 차지함.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속하죠
- 대한민국의 수도
-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 이탈리아의 화폐 단위

▶ 오른쪽 방향 열쇠

- 많은 도서를 모아 보관하고 공중에게 열람시키는 시설
-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실체. 혼령
- 손과 얼굴을 씻음

▶ 아래쪽 방향 열쇠

-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반대는 이혼
- 중국의 4개 기서(奇書)의 하나. 명나라 때 오승은이 지은 고전 대화소설.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온다
- 밀가루나 메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가늘게 썰거나 틀에 눌러 빼낸 식품 또는 그것으로 만든 음식

▶ 12월호 정답

파	소	나	기	동	반	자
산	호	침	화	급		
랑		반	찬	생	고	기
응	이		성	공	철	
고		마	개	격	투	
집	사	면	표	창	신	탄
		장		문		칭
떡		조	조	문		출
국	유	림		사	환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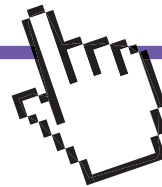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안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